解釋的 파라다임과 組織研究

金 善 建

目 次

1. 序 論
2. 組織研究와 베버의 影響
3. 社會世界와 解釋的 研究方法
4. 解釋的 파라다임의 組織分析
5. 結 論

1. 序 論

組織은 特定한 目的을 達成하려는 관심에서 集團의 活動들을 조정하는 분명한 節次가 樹立될 때 存在한다. 인간의 집단적 노력은 경영자와 집단적으로 협상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와 같이 구성원 모두가 共通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경영자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경우와 같이 일부의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타집단을 끌어들이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조직되게 된다.

사회구조란 각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행위가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합의된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반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조직된 사회적 행위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개인들의 노력이 명백하게 조직된 것은 아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정부기구나 노동조합과 같이 분명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구조이며 여기에는 의도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規則性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은 단순한 出現的 勢力(Emergent Forces)으로서 보다는 公式的으로 제정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社會體系(Social System)라 하겠다.[1]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分析的인 것이어서, 실제로는 출현적인 側面과 의도적인 側面이 혼합되어 있으나 우리에게 組織과 다른 社會集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여준다.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相互關係를 맺게 되면 社會組織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집합

1) Peter M. Blau, "Theories of Organiz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1, Macmillan, 1980.

적 活動들이 모두 組織(公式組織)이라고 볼 수는 없다.[2] 조직을 규정하는 기준은 共同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多樣하고 전문화된 하위집단들의 活動을 조정하고 동원하는 절차가 있느냐에 左右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모든 관계와 활동들이 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完全하게 결정된다고 하면 조직에 대한 과학적 探究는 의미가 없게 된다. 두말할 必要도 없이 조직을 알기 위해서 단지 조직의 공식적 기구표나 절차규정을 조사해 보면 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결코 공식적 규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經驗的 연구가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나타나는 집합적 활동들이 공식적으로 조직된다는 점에서 조직의 槪念이 규정되지만 역설적으로 조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사회구조의 발전은 불가피하게 미리 정해진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最近의 조직에 관한 理論들을 살펴보면 조직연구의 단점들을 補完하는 중요한 理論的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이 조직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따라서 조직에 接近하는 槪念的인 틀도 다양하게 選擇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學派들 사이의 경계선도 점차 분명하지 않게 되었으며 조직에 관한 槪念과 方法論을 서로 교환하게 된 것이 최근 組織理論의 特徵이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이론의 變化方向과 많은 조직에 관한 연구의 理論的인 重要性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일은 성급한 것일지 모르나, 조직에 관한 연구는 그 量과 質에 있어서 급속히 發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 관한 硏究들은 조직을 하나의 社會體系(Social System)으로 보고 자체안정을 추구하는 非人間的인(Impersonal)메카니즘으로 체계의 성격을 說明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으로 특정구조와 과정의 能率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은연중에 機能主義的 관점을 사용하여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직연구의 主要學派인 人間關係 學派, 組織心理學, 社會技術體系(Socio-technical System), 構造機能主義, 意思決定論 等이 모두 體系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社會學的 觀點에서 볼 때, 대부분의 조직분석에서 나타나는 限界性은 조직에서의 역할규정과 그 遂行을 說明하는데 조직의 外的要因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즉 대부분의 조직이론가들은 行爲의 說明에 단지 조직내적 요인만을 關聯시키는데 만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體系모델에 입각한 接近方法들은 물론 조직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경험적인 분석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대한 論理的 弱點을 갖고 있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즉 體系(組織)의 欲求라는 槪念과 自體維持活動이라는 槪念을 索出的 目的 이외의 目的으로는 使用될 수 없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槪念은 마치, 구성원들의 목적이나

2) 애로우(K. J. Arrow)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시장과 조직을 2가지 대표적인 조직형태로 보고 조직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이를 보강하고 대체하는 제도로서 생겨나게 된다고 본다. (K. J. Arrow, The Limit of Organization, New York : W. W. Norton, 1974. 참조.)

定義와 獨立하여, 思考와 行動이 社會的 構成體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의곡(Reification)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조직연구자들은 조직이 자체를 유지하고 환경에 適應하는 과정의 비의도적, 비인간적 性格을 강조하면서 現象의 原因보다는 結果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현상의 원인은 그 결과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원인의 설명에 있어서 目的論的 誤謬를 범하기 쉽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체계모델이 變動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이와 같은 심각한 한계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체계모델에 입각한 조직연구자들은 특히 조직연구에서 사회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 까지도, 狀況에 대한 주관적 意味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현재의 體系모델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다임이 必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社會秩序의 本質과 社會的 實在(Social Reality)의 特性과 關聯하여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 현상학적 사회학 등에서 유용한 代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가 인간을 규제하는 側面을 다루는 것이 체계모델 또는 機能主義理論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側面을 보여주고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접근방법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적 파라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論文은 解釋的 파라다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과 함축된 의미를 밝혀봄으로서 그것이 조직연구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고저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연구에서 막스 베버(Max Weber)가 미친 影響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회세계에 대한 질적연구방법으로서 해석적 파라다임의 방법론적 입장을 論議하고, 여기에서 드러난 입장에 비추어 조직에서 나타나는 행위분석과 關聯하여 해석적 파라다임의 관점에서 조직을 분석한 연구내용들을 밝혀보는 것이 논리전개상 必要한 順序인 것 같다.

2. 組織硏究와 베버의 影響

오늘날 組織理論의 出發點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官僚制理論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또 베버가 오늘날의 조직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베버의 合理性이라는 槪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오늘날의 조직연구가 베버의 官僚制에 관한 생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려는 해석적 파라다임도 베버가 강조한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의 理解社會學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必要한 일이다.[3]

3) 베버는 이해의 방법을 사용한 조직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역사적 비교 연구를 위해서 관료제를 연구하였다. 2장 참조할 것.

베버의 官僚制 理論[4]은 그의 2가지 관심에서 출발하는데, 즉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變化와 관련된 사회조직의 문제와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한 公式組織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베버는 현대사회의 모든 側面에서 官僚制化가 증대하고 있는 점에 관심을 가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複雜한 대규모 조직의 전형적인 사회구조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베버의 저작은 官僚制化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複合組織에 관한 경험적 연구라는 2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였다.[5]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료제를 그의 支配社會學의 文脈에 놓고 보아야 한다. 베버는 權力이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영하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한다.[6] 그러나 그는 權力一般에 대해서 보다도 支配라는 權力關係의 특정한 유형에 관심을 가졌다. 지배가 지배로서 의의를 갖는 것은 주어진 命令에 대하여 피지배자가 갖는 정당성에 대한 信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命令을 받는 사람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즉, 確立된 지배란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權力의 행사를 정당하다고 믿는 信念에 根據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행정기구의 槪念이다.[7] 이와 같이 정당성의 信念과 행정기구는 베버의 지배유형 구성에 중요한 두가지 기준이 된다. 베버는 정당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지배의 세가지 유형을 分類하고 있다.[8]

여기서 合法的 支配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행정기구가 官僚制이다. 官僚制는 이러한 법적질서와 규칙에 대한 정당성의 信念에 根據하고 있는 것으로서 베버는 지배유형에 관한 역사적인 비교의 文脈에서 관료제의 특징적인 성격을 밝혀낸 것이다.

과거에도 관료제적 행정이 存在했지만, 관료제가 대규모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이며, 이와 같은 관료제화 경향은 국가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최대의 能率을 위해 비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관료제적 조직유형이 증대되는 경향을 베버는 觀察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사회학의 文脈에서 관료제의 槪念을 발전시킨 베버는 관료제화의 경향을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즉 관료제화라는 말은 조직과 관련된 측면 뿐만 아니라, 행위양식과 사고방식까지 包含하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 까지 퍼진 의미로 합리주의화 (Rationalization)라는 槪念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9]

4) Max Weber, Bureaucracy, pp. 196~244 in Max Weber,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 and edited by H. H. Gerth and C. W. Mills,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46.

5) Nicos P. Mouzelis, Organization and Bureaucracy, London : RKP, 1967, Part one.

6) M.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5 Aufl, Tübingen, J. C. B. Mohr, 1972, p. 124.

7) 지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사되려면 명령을 내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잇는 역할을 할 행정요원과 행정기구를 필요로 한다. (Ibid, pp. 549 ff)

8) Ibid, 베버는 지배의 3가지 유형으로 전통적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를 들고 있다.

9) Mouzelis, Op. cit., pp. 15~25.

베버는 근대 서구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합리화 과정으로 보았다.[10] 이러한 합리화란 어떻게 하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도록 의식적으로 수단을 擇하느냐라는 문제와 관계된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염가로 상품을 만들어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效率的으로 써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곧 합리성의 문제이다.[11]

이와 같은 합리주의화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社會變動에 관한 그의 변증법적인 역사철학을 볼 수 있다. 자발적이고 創造的인 힘을 나타내는 카리스마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베버는 카리스마의 쇠퇴와 합리주의화에 압도적인 경향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文脈에서 관료제화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한편 베버는 증대하는 합리주의가 비합리성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세계를 마술로부터 풀어놓았으나(Disenchantment of the World)" 그것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합리화는 이제까지 종교와 전통이 제공하였던 생의 의미와 가치를 破壞만 하였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즉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인간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아무 것도 제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근대적, 관료제적 생활은 합리적인 것인 동시에 비합리적(목적이 없다는 것)인 것이 되었다.

관료제화에 관한 베버의 변증법적이고 불균형을 이루는 견해를 요약하면 베버는 관료제란 인간이 이제까지 만들어 낸 것 중에서 가장 能率的인 조직의 유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관료제화에 따른 能率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12]

조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관료제의 理念型的 특징을 베버는 논의하고 있다. 이념형은 일정한 개념적인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形態로 구성하는 것인데 이념적 순수성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13]

관료제의 특성에 관해서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으나 베버가 들고 있는 주요 특성을 보면 전문성에 따른 분업의 원칙, 제한된 명령과 責任領域을 가진 위계적 권위구조, 조직 구성원간의 非人格的 關係, 能力과 技術的 知識을 기초로 한 充員, 公과 私의 嚴格한 區分 等을 볼

10) Karl Löwith는 현대사회를 이해하려는 베버의 노력을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중심개념을 '합리화'라고 주장한다. (Karl Löwith, "Max Weber und Karl Marx" in K. Löwith, Gesammelte Abhandlungen zur Kritik der Geschichtlchen Existenz, Stuttgart, Kohlhammer, 1960, S. 8ff.

11) 합리성의 분류와 의미에 대해서는 나의 글, "막스 베버의 합리성의 의미"(미발표), 그리고 양영진, "Max Weber의 合理性과 「印度의 宗教」", 李萬甲 敎授 華甲紀念論叢 :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汎文社, 1983, 참조할 것.

12) Mouzelis, Op. cit. p. 26.

13) M. Weber,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s, Trans. and Ed. by E. A. Shils and H. A. Finch, New York, Free Press, 1947, pp. 90~3.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연결시키는 공통적 요인을 전문적 지식에 기초를 두고 최대의 能率을 目的으로 하여 조직을 통제하는 합리적 규칙의 存在이다. 封建的 行政도 규칙을 통하여 조직의 행동을 통제하였으나 현대의 관료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합리적 사고에 기초를 두지 않고 전통에 기초를 둔 지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관료제를 특히 合理的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14]

이와 같은 베버의 理念型的 特徵들이 오늘날의 조직이론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簡略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조직이 어느 정도 관료제적인가를 밝히는 기준으로 위계적 특징을 사용하는 경우[15], 관료가 직무수행에서 갖는 재량권의 정도, 관료제의 이념형이 조직 전체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행정적 기구만을 의미하는가 등에 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료제라는 말의 현대적 용법을 보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가치평가적 측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16]

관료제가 현대의 조직이론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많은 混亂과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狀況은 한편으로는 베버의 이념형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기인하기도 하나, 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한 용어의 무비판적인 적용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관료제의 이념형은 주로 행정체계에 대한 역사적 비교분석의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조직의 발전 문제와 문화교차적 비교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역사적이고 미시적 지향을 하고 있다.[17]

베버와 같은 고전적 학자들은 대규모 조직이 사회의 정치구조에 미치는 效果를 연구하였으나 베버 이후의 관료제 연구는 분석의 수준을 조직에 한정시키면서 강한 경험적 성격을 띠고 사례연구가 일반적인 연구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개인행동의 비합리적 측면까지 包含시키면서 조직수준에서 관료제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는 機能主義的 접근방법을 취하게 된다.[18]

베버의 관료제이론은 아직도 조직연구에 있어서 자극과 통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 조직이론이나 복합조직연구 등의 새로운 名稱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마는 이 분야의 연구들은 베버의 기본개념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 選擇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론적인 것과 실험적인 것을 관련시키면서 관료제 현상을 이론적으로 재정식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주로 조직생활의 비공식적 측면과 組織內 活動에 있어서 局外者의 參與

14) Mouzelis, Op. cit. p. 39.

15) 예컨대, Stenley Udy Jr. 는 조직이 3~4가지 권위 수준을 가진다면 관료적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S. Udy Jr. "Bureaucracy and Rationality in Weber's Orgenizational Theory; An Empirical Study" A. S. R. Vol. 24, 1959)

16) Mouzelis, Op. cit. pp. 50~2.

17) Ibid, p. 54.

18)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폐쇄적 합리체제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홍익, "현대 조직사회학의 흐름" 현상과 인식, 6권 2호 (1982), p. 11.

問題, 행위자의 관점, 外部의 정치적 壓力에 反應하는 문제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들은 構造機能主義者나 체제이론의 연구방법보다도 관료제의 다양한 현상들을 더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공식조직에 관한 이론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19]

3. 社會世界와 解釋的 硏究方法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계량적 접근방법이 표방하고 있는 방법론적 일원주의는 오늘날 그 근거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수십년간 분석철학, 해석학, 현상학, 비판이론 등의 다양한 관점들이 실증주의에 도전하여 왔으며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와 같은 저서는 종래 실증주의자나 논리적 경험주의자들이 내세웠던 독선적 과학관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20]

여기서 해석적 연구방법이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행위의 분석에 있어서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견해를 말하며, 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현상학적 사회학, 민속방법론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주로 베버와 슈츠(Alfred Schutz)의 견해를 中心으로 質的 접근방법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적 현실의 성격에 관하여 논의하여 보자.

슈츠에 의하면 사회과학 방법론의 쟁점과 관련하여 두가지 대립되는 입장을 설정해 볼 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자연과학적 방법이 유일한 과학적 방법이며 따라서 그와같은 방법만이 인간사회연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입장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방법은 자연과학의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21]

물론 슈츠의 이와같은 대비는 두가지 대립되는 입장을 과장되게 단순화시킨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두개의 대립되는 견해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두개의 상반되는 견해를 대비시켜 보는 것은 양적 접근방법과 질적 접근방법을 비교해 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고찰하는데 퍽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쟁점을 요약하여 본다면[22] 첫째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연현상에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데 反해 社會는 그

19) David Silverman, The Theory of Organizations, London, Heinemann, 1970.

20) Richard J. Bernstein, The Restructuring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Harcout Brace Jaranovich, 1976, pp. xvi- xvii.

21) Alfred Schutz "Concept and Theory Formation in the Social Sciences" in Collected Papers, ed. Maurice Natanson, The Hague, Nijhoff, 1967, Vol 1. pp. 48-49.

22) R. J. Bernstein, op. cit. pp. 74 ff.

안에서 生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수한 의미나 적합성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양자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 과학의 목표는 원인을 밝혀내서 인과론적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관계있는 요인'만을 '관계없는 요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23] 사회현상에 있어서는 복잡한 상호관계로 얽혀있는 수 많은 변수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법칙정립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24]

세째로는 客觀性의 문제인데 양적분석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현상과 사회 현상을 동질의 것으로, 즉 저기에(out there)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얘기다. 자연현상에 있어서 나무, 돌 등은 분명히 '저기에' 존재하는 物體이므로 그것은 연구과정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명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현상은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적 실재는 의미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25] 따라서 사회적 현상은 의미의 해석을 통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양적 접근방법이 현상을 '外部로 부터 설명'하려는 것이라면 질적 접근방법은 '내부로 부터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접근방법의 기본적인 특성은 베버의 'Verstehen'이라는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베버는 사회과학이 과학이기 위해서는 인과적 설명을 추구해야 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의 특성이 문화적, 역사적 현상임을 감안할 때 의미의 해석을 통한 '理解'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연현상과 같이 반복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의 분석으로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으나 역사성을 갖는 사회현상의 경우는 드러난 현상만으로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버는 '이해'를 사회현상연구에 있어 주된 도구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바로 질적 접근방법에 핵심적 요소가 된다.

베버는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사회적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의도, 해석을 강조한다. 사회현상을 행위자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관점은 사회적 현상은 의미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과학자가 다루는 사회적 사실, 자료 또는 현상은 자신이 그 관찰영역 속에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와 적합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사회과학자들이 다루는 대상은 일반인들에 의해서 부여된 의미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23) E. Bisbee, "Objectivity in Social Science", Philosophy in Science, Vol. 4. 1973. P. 378.
24) Morris Cohen, Reason and Nature ; An Essay on the Meaning of Scientific Method, New York, Macmillan, 1931, p. 356.
25) David Walsh, "Sociology and Social World" in New Directions in Sociological Theory, eds. Paul Filmer, et. al., London, Collier-Macmillan, 1972, pp. 15-35.

렇다면 사회세계에 대한 모든 설명은 인간들의 행위가 갖는 주관적 의미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사회적 실재가 바로 그것에서 연유되기 때문이다.

의미의 세계는 주관적 세계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러싼 쟁점은 과연 그것이 경험적,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입장이 발견되는데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의 구분을 주장했던 딜타이(Wilhelm Dilthey)는 경험적,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26] 현상학을 사회과학에 연결시킨 슈츠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슈츠는 사회적 행위의 의미를 강조한 베버의 입장에 입각하여 행위의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며 그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해의 방법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베버의 이해사회학을 현상학적 사회학으로 발전시켰다 하겠다.[27]

의미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본 슈츠의 견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슈츠는 객관적 관찰을 감각적 지각과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한다.[28] 슈츠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언어와 코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처음부터 상호주관적인 것으로 경험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현상은―처음부터 상호주관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단순한 事象世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 성격을 갖고 처음부터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행위를 상호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 말은 우리가 동료의 행위를 동기나 목표의 관점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뜻한다.[29] '외부로 부터의 이해'의 방법이 사회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상호주관성'이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의미의 세계의 경험적,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게 된다.

4. 解析的파라다임의 組織分析

가. 組織과 生活世界

社會學은 社會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을 다룬다. 인간은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결단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인간행동의 특성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30]

26) Fred R. Dallmayr and Thomas A. McCarthy (eds.), Understanding and Social Inquiry,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1977, p. 4.

27) 슈츠는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기능은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해석적이어야 한다는 베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베버가 이해, 주관적 의미, 행위의 본질적 특성등을 명백하게 진술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Alfred Schutz, The Phenomenology of Social World, trans. by G. Walsh and F. Lehnert, London, Heinemann, 1967.)

28) Schutz, op. cit., p. 51.

29) Ibid, pp. 53-54.

30) 박영신, "역사·구조적 접근의 일반원리", 사회학 연구, 첫째책, 대영사, 1984. p. 15.

베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사회학에서 사회적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가 있는 한에서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의 의도는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동기에서 빚어질 수도 있고,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세력들이 서로 얽혀 있어 행동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데 사회학의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해석적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학이론들은 사회적 행위의 설명에 있어서 구조적 변수들 간의 관계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행위주체자의 지향성과 의미와 같은, 행동을 만들어 내는 요인은 설명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와같이 행동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사회학자들이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공허한 결정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앞장에서 사회세계의 성격에 대한 해석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것도 결국 이제까지의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내용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었다. 버거(P.L.Berger)와 루크만(T.Luckmann)이 지적하듯이 감춰진 구조적 자료뒤에 숨은 '인간요인'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제 우리는 구조적 현실과 현실 구성이라는 인간의 과업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31]

그동안 조직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구조이론은 70년대에 들어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다.[32] 필자도 조직분석에 있어서 행위이론의 유용성을 검토하면서 그와같은 준거틀이 조직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33]

조직생활과 관련된 측면의 연구에 있어서 행위이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석적 파라다임에 대한 관심은 근본적으로는 生活世界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된다.[34] 생활세계란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흐름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계이며 우리 모두의 삶이 행동으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장이다. 생활세계의 문제가 인식론적 수준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훗쌀(E.Hussarl)에 의해서 이지만 우리는 조직생활과 관련하여 생활세계가 의곡되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베버의 합리화에 대한 우려와도 관련되지만 도구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조직된 행동체계는 생활세계와 분리되면서 생활세계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다. 그리고 생활세계가 조직생활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내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생활세계와 사회조직의 도식적 구분이 안고 있는 위험을 피하는데 요긴하다. 왜냐하면 사회조직 안에도 의사소통으로 매개되는 생활세계가 분명히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소통과정은 조직운영에 수단적인

31)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 Y. Double Day, 1966. p. 170.
32) 정홍익, 앞글, 25쪽.
33) 나의글, "조직에 있어서의 사회적 행위에 관한 고찰", 제대논문집. 14집, 1982, 287-306쪽.
34) 한상진, "생활세계의 문제의식과 사회과학," 현상과 인식, 7권1호(1983), 108-128쪽.

것으로 변모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시말해 의사소통의 기능이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 전달과 교환으로 압축되면서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가장 핵심적인 기능, 곧 의미의 창출과 합의형성은 쇠퇴해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 사회조직의 전문화, 기능화, 복잡화의 추세에 따라 거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다.

이제까지 논의하였듯이, 조직연구에서 소홀히 되어온 생활세계의 문제와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중의 하나가 해석적 파라다임일 것으로 생각된다.

나. 解析的 파라다임의 적용

해석적 파라다임은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한 지적 전통을 갖고 있어 그 내용을 규정하기가 어려우나 그것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사회세계를 사회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철학적, 사회학적 사상들을 말한다고 하겠다.[35]

사회세계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해석적 파라다임의 근본적인 가정은 사회구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과학의 유용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세계란 공통언어의 사용과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한 의미를 창조, 유지하여 나간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세계란 본질적으로 고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형성, 변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와같은 견해에서 본다면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조직은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다면 해석적 파라다임에서 조직에 관한 이론을 세우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해석적 파라다임에 입각하여 조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주로 기능주의적 파라다임과 반대되는 견해의 타당성을 보여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인 '조직'이라는 사회적 실재를 마치 '저기에' 존재하는 고정적 실체로 취급하는 결정론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세계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능주의적 관점의 오류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을 통하여 기능주의에서 제시하는 조직의 고정적 구조가 얼마나 개인의 주관적 의미구성에 따라 좌우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논의한 통찰력으로부터 우리가 조직의 행위분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

35) Gibson Burrel and Gareth Morgan,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s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n, 1979. p. 227.

엇인가? 우선 '조직'이라는 개념이 갖는 문제적 요소부터 검토해 보자.[36] 우리는 흔히 공식조직은 타 집단과 달리 분명한 목적과 사회적 관계의 형식성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병원, 기업 등과 같은 공식조직과 가족, 친구집단, 코뮤니티 같은 사회조직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은 보통 분석적 근거에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향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연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규칙을 미리 규정되어 주어진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는 사실상 문제로 남는 것이다.

사회학적 분석에 있어서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는 인간의 제도를 物象化(Reification)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가 그냥 실재하는 물건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37] 그러나 그것은 구성원들이 제도를 '사물'이나 '사실'로 여기게 되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서 사회질서에 관한 쟁점을 회피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체계가 정말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게되는 공허한 결정론으로 비약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와같은 문제가 조직연구에 있어서도 전문화, 규모, 하이아라키와 같은 '공식구조'와 참여자들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조직의 구조를 논의할 때, 그것이 구성원 들의 의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행동을 규정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칙을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트너(E.Bittner)는 조직생활에서 행위자는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니라 개인의 목적에 따라 조직의 개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38] 예컨데 조직에서의 행위자는, 마치 장기를 둘 때 卒을 회생시키는 첫 수와 같이, 조직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책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조직의 공식적 규칙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활동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관찰하고 있다. 이와같은 비트너의 분석은 조직의 세계가 행위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측면을 잘 보여준다. 조직이라는 개념, 구조, 하이아라키, 능률과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시 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이와같은 구성과정 자체가 사회학적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9]

짐머만(D.H.Zimmerman) 도 미국의 사회복지국의 신규임용자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

36) David Silverman "Some Neglected Questions about Social Reality", eds Paul Filmer, et al, op, cit. p.178ff.

37)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1964. p.102.

38) E. Bittner, "The concept of Organisation" in R. Turner, Ethnomethodology, Harmondsworth, Peuguin, 1965. p.74.

39) E. Bittner, "The Police on Skid Row; a Study of Peace Keeping" ASR, 32 (5) pp.669-715. 비트너는 이 논문에서 빈민지역 경찰관이 질서유지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규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서[40] 조직의 공식구조가 당연한 사실이라는 관념을 공격하고 공식조직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용한다고 하는 규칙, 정책, 목표등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찜머만은 개인이 조직의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목적에 조직의 목적을 타협하면서 이용하는 측면을 관찰하여 조직의 규칙이 개인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계원의 해석에 좌우된다는 점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써드노(D.Sudnow)는 미국의 법정에서 형사범죄에 관한 판결이 얼마나 검사, 변호사, 피고 사이의 상호타협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있다.[41] 그는 피고들이, 구형량과 판결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정에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설득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과정은 피고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지방검사의 원래의 구형량을 바꾸도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검사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거래는 피고가 범한 죄가 법 집행자들이 '정상적 범죄'로서 분류·유지하는 사례철에 비추어 얼마나 전형적인 케이스에 들어맞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문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되어있는 법률적용의 과정까지도 이와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에 의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 움직일 수 없는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법조문과 범죄통계도 결코 당연하고 분명한 사회적 실재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심지어 법률로 정해져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관료제적 상황에서도 사회적 실재는 사회적으로 타협되고 사회적으로 유지·변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5. 結　　論

해석적 파라다임이 오늘날 조직이론에 가하는 도전은, 조직이론의 근거 자체를 매우 의심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 하겠다. 기능주의자들의 파라다임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가정 자체를 의문시 한다면, 움직일 수 없는 구체적 현상으로서의 조직은 현상학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세계는 본질적으로 과정적인 것

40) D.H. Zimmerman "Record Keeping and the Intake Process in a Public Welfare Organization" in S. Wheeler ed, On Record, New York, Russell Sage, 1970. p. 224.

41) D.Sudnow, "Normal Crimes : Sociological Features of Penal code in a Public Defender Office," Social Problems, 12(3). pp. 255-76.

이어서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같이 행동하는 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부터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생성된 사회적 실재는 전형적인 형태 들로서 이해될 수 있는 실재에 대한 이미지 이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도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조직, 조직의 상호주관적 지위는 의문시 된다.

앞에서 살펴본 해석학적 연구들은 구조기능주의의 입장에 치우친 이론가들이 사회세계를 지나치게 구조화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실재의 핵심은 가핑켈(H.Garfinkel)이 말하듯이 일상생활이 가지고 있는 '두려울 정도의 지표성(the awesome indexicality)'에 있는지 모른다.[42] 실재는 인간사의 표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급박할 경우에 자기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할 때 나타나는 전형화의 심층구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학적, 해석학적 파라다임의 존재론적 가정은 오늘날의 조직이론에 완전하게 파괴적이다. "과학혁명은 …… 하나의 파라다임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파라다임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비축적적인 변화의 에피소드들을 가리킨다."[43] 는 쿤의 주장과 같이 전혀 다른 파라다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의 조직이론가들이 해석적 파라다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무엇인가?[44] 기능주의 쪽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적 파라다임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사회적 실재가 갖고 있는 보다 과정적, 출현적 성격을 탐구하는 작업, 사회적 실재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회적 세계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하여 이와같이 수정된 견해에 상응하는 인간의 본성과 방법론에 관한 인식론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의 조직이론이 이와같은 가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적 오리엔테이션을 반성하고 재평가 한다면 훨씬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작업은 해석학적 파라다임의 도전에 대한 기능주의의 응전이라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준거틀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조직에 대한 분석이 사회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연구에서 당연시되는 분석적 틀이 갖고 있는 한

42) Harold Garfinkel, Studies in Ethonomethod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7, p.11.

43)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2. p.91.

44) 물론 조직 상황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 관한 논의는 G. Burrell and G. Morgan, op. cit. chap. 7. 참조할 것.

계를 인식하고 그러한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쟁점들을 새롭게 규정하여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Summary

The Interpretative Paradigm and the Study of Organization

Kim Suhn-gun

In recent years a number of theorists located within the interpretative paradigm have involved themselves in a debate about various aspects of organizational life and concerned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ir point of view as against the prevailing orthodoxy characteristic of the functionalist paradigm.

The interpretative paradigm embraces a wide range of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thought which shares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attempting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social world primaril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ctors directly involved in the social process. The interpretative paradigm offers a frame of reference from which can be dierived a series of relat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social life in any organization.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e interpretative paradigm with regard to the ontological status of the social world reject the utility of constructing a social science which focuses upon the analysis of structures. From this point of view, organization simply do not exist. The aim of this study has been to formulate and examine the potential uses of the interpretative paradigm as an alternative aproach for the study of organization.